

롯데, GS 손잡고 유화 합작사 세운다



2023년까지 8000억원 공동 투자
연간 매출 1조·영업익 1000억 기대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합작회사를 세우고 8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사업 투자에 함께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얼에서 양사 대표이사 간 비스페놀A(BPA) 및 C4 유분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사 '롯데GS화학 주식회사' (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올해 하반기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롯데케미칼이 51%, GS 에너지가 49%의 지분을 소유한다.

신규 합작사는 2023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BPA 제품 20만톤(t)과 C4 유분 제품 21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기대되는 연간 매출액은 1조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이다. 아울러 77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BPA는 전기·전자제품, 의료용 기구 및 자동차 헤드램프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C4 유분은 탄화수소 혼합물로 추출과정을 통해 합성 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인조대리석 원

료인 삼차부틸알코올(TBA)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각사의 사업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케미칼은 폴리카보네이트의 생산 원료인 BPA를 합작사에서 받아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존 C4 유분 사업도 확장할 전망이다.

GS에너지는 자회사인 GS칼텍스를 통해 합작사가 생산할 제품의 생산 원료인 프로필렌, 벤젠, C4 유분 등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석유화

학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장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롯데케미칼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는 "정유·석유화학, 자원개발, 전력·집단에너지 등 기존 핵심사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투자를 모색해 오고 있다"며 "이번 합작사업이 에너지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캠코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캠코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이 효율적인 개발·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반영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개발 여건을 고려한 59개소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이다. 일반인 부문과 전문가 부문을 구분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16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캠코는 응모작 중 실무자 평가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아이디어 총 16건을 선정해 6900만원 상당의 시상금과 부총리, 캠코 사장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 캠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아이디어를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빅데이터경제 걸맞은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시급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

금융업, 빅데이터 도입률 높은 수준
정보 주체 통제권 강화 필요성 강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가 금융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직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완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신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사가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에 맞는 신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오픈 API를 구축해 제휴기업과 고객의 신용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융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32.9%로 전 산업군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다.

◆'빅데이터 경제'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필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의 다원화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기능을 저해한다고 본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인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으나 국회의원의 관심부족과 공정사태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위원회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돼 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향후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권의 데이터 경제가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 관리 등을 의무화 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EU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설명의무 및 정보 주체의 거부권 등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 현

행법이나 개정안은 데이터 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보장되는지의 여부와 시장경쟁에 있어서의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산업 주체로서 리스크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또한 실질적인 데이터 산업의 주체로서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오픈 API를 공유하는 등 고객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객 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IT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 금융범죄 등이 상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단계별로 고객 동의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주거 상품' 관심

까다로워진 조건에 수요자 시선집중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 주거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아끼는 분위기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15일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 상품에 몰리고 있다"며 "청약통장은 꼭 써야 하는 아파트에만 쓰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 청약통장이 집중되는 돌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지구 L-1블럭(목감동 39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목감역 지

음재파크뷰'는 36~40㎡, 154실 규모로 현재 분양 중이다.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2억원 초반대 분양가로 중도금 무이자 제공된다.

덕진종합건설(주)은 8년 임대아파트 '광양의 봄 플러스' 59~75㎡, 496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등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청약통장 필요없는 틈새 주거 상품 주요 분양〉

단지명	위치	총세대수(실)	전용면적(㎡)	건설사
목감역 지음재파크뷰	시흥시 목감지구 L-1BL (목감동 397번지)	154	36~40	도시공감
광양의 봄 플러스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래리 산 55-48번지	496	59~75	덕진종합건설(주)
충장 유탑 유블레스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68-1번지	480	29~84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
웅천 퍼스트시티	전남 여수시 웅천동 1868-2번지	330	25~58	아이엠지건설(주)
브라이트 지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849	29~59	GS건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장 유탑 유블레스' 29~84㎡, 480실도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일대에서 분양된다. 이번 분양에서는 입주 시점에 일반분양과 이사 걱정 없는 4년 전세 전환(일부 타입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사인 유탑디앤씨가 분양 시 전세 전환 보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은 4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남 여수 웅천동에서 분양하는 '웅천 퍼스트시티' 25~58㎡, 330실도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출연체율 연속 상승세 중소·가계신용 두드러져

국내은행의 대출연체율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5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1조2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3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5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